

쇼겐지 절

쇼겐지 절은 과거 오모리 다이칸쇼(막부의 직할령을 관리하는 관청)가 있었던 장소에서 서쪽으로 약 100m 정도 떨어진 언덕 기슭에 자리한 정토종 사찰입니다. 1600년대 초기 도쿠가와 막부가 이와미 은광의 지배권을 장악했을 무렵에 창건된 이 절은 에도 시대(1603~1867)에 이와미 은광 지역의 지방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도쿠가와 가문의 쇼군이 은광을 관리하기 위해 다이칸(다이칸쇼에서 집무하는 관리)을 임명하면서 오모리 마을은 다이칸쇼를 중심으로 발전했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다이칸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인들과 무사들이 이곳 오모리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다이칸이 이 쇼겐지 절에 참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중 6명은 다이칸쇼 덕분에 오모리에서 사업을 성공시켜 큰 부를 얻게 된 상인 가문의 가족들과 함께 절 경내에 매장되었습니다.

1772년에 세워진 높이 10m의 당당한 모습의 산문(사찰로 들어가는 문) 앞에는 한 쌍의 사자와 용이, 그리고 그 뒤편에는 머리가 둘인 코끼리 등 지역의 장인들이 섬세한 조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문 바로 우측에는 이와미 은광의 2대 부교(무가 시대에 행정 사무를 담당했던 장관급 관리)를 지냈던 다케무라 미치키요(1561~1635)를 기리는 돌지붕이 달린 묘석이 서 있습니다. 이 사찰의 본당은 1867년에 지어진 것으로 화려한 색으로 칠해진 천장 아래에는 아미타여래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본당 뒤편에 자리한 언덕을 좀 더 올라가면 에도 막부의 창시자인 도쿠가와 이에야스(1543~1616)를 신으로 모신 도쇼구(東照宮)가 있는데, 이곳에는 이에야스의 뒤를 이은 11명 쇼군들의 위패도 모셔져 있습니다. 이처럼 쇼겐지 절은 다이칸, 더 나아가서는 도쿠가와 막부와도 깊은 인연을 맺은 사찰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